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학습내용 -1] 페미니즘의 남성이해

양성관계의 변화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남성은 역차별을 호소하며 오히려 남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이러한 남성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성차별의 희생자라고 한다. 가족부양의 일차적 부양자로서의 책임부담, 불공평한 이혼, 아동양육권관련법, 남성만이 해야 한 군복무, 군복무기간에 벌어지는 폭력, 군가산점제폐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을 일과 성공, 돈이라는 잣대로만 측정하는 기준, 모든 폭력과 성폭력 난동의 주범으로서의 남성 때리기 등을 예로 든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남성을 가해자로서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동일한 희생자로 간주한다. 여성주의는 남성을 구원한다. 여성주의를 적극 수용하는 남성들도 있다. 또한 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 남성의 전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새로운 남성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남성들도 있다.

페미니즘의 남성이해는 페미니즘에 따라 다음의 세 질문에 따른 답변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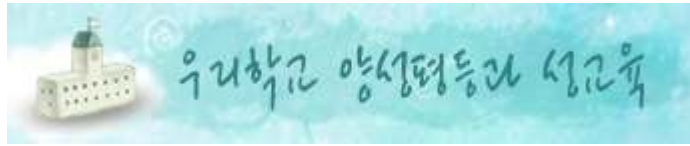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1. 양성평등관계로부터 남성이 얻는 이득
2. 남성은 적인지 아니면 동반자인지 잠재적 아군인지
3. 여성만의 조직이 필요한지

1)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남성:

19세기의 자유주의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의 예속’(John Stuart Mill The Subjection of Women, 1869)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간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불의보다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데 시민의 절반인 여성을 자신의 능력을 가정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영역에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이다.

남성 역시 직장 내에서 여성과 동등하게 일을 하면 이득을 얻는다. 왜냐하면 남성만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으로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잃을 것은 그들 자신의 심장병뿐이다’ (Gloria Steinem, 1983)

양성평등의 추구는 그래서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게임이고 남성이 이를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인식하면 페미니스트의 목적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은 동맹자일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 여성만의 분리주의나 여성만의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1996년 결성된 미국의 여성조직인 나우는 이미 회원 중의 10%가 남성이다.

남성문제란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의 성차별적 행동이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와도 모순되며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바로 그들 자신의 주장이라는 것을 알면 문제는 해결된다.

2)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남성

이들도 남녀 사이에는 기본적인 이해관계갈등은 없다고 본다. 남녀가 함께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며 그럴 때 모든 형태의 종속은 사라지며 여성의 경제적인존도 더 이상 기반을 잃는다.

여성이 맞서서 싸워야 할 성은 남성이 아니며 경제체제이다. 여성의 해방은 제국의 적으로서의 남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을 지배하고 이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도록 하는 경제 사회 성적인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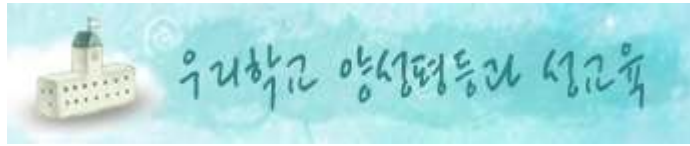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그러나 사회주의 남성들이 양성평등원칙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평등한 세상은 혁명 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지연되고 또한 그들의 현실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성차별적 행동들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본제하에서는 남성은 노동자로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남성은 돈이나 벌어오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구성된 남성성으로 억압받는다. 직접적인 결과로 남성은 긴장과 불안 속에 살며 간접적으로는 남성의 높은 질병율과 빠른 사망률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남성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양성 평등한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이며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계와 영구적으로 상충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3) 급진적 페미니즘과 남성

남성은 이 가부장제체제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본다. 양성간의 관계는 단순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억압의 문제이고 사회 제 영역에 전반적으로 만연해있으며 깊이 뿌리 박혀 있다. 1969년의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뉴욕의 레드스토킵선언에서 가부장제는 아주 악한 형태라 하더라도 여성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며 아주 짐작고 교양 있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부장제란 남성의 규범과 이상을 여성의 것보다 우선으로 놓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전복할 때에야 비로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와 전제들을 전적으로 재질서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이고 이는 여성만의 조직 여성만의 힘으로 가능하다.

[학습내용 -2] 남성학과 남성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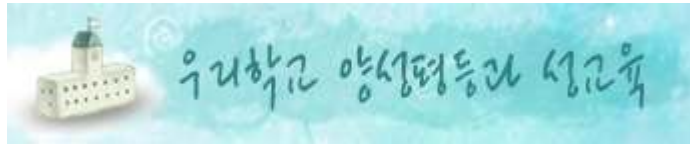
여성주의 비평은 인류의 모든 학문적 활동이 남성학문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 가치중립적 학문은 사실은 남성학문이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은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오로지 남성지향적인 범주들만 포착되어 있다 고로 남성학에 의한 남성의 연구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오로지 여성연구 여성학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브로드(Brod 1987) 퀴멜(Kimble 1987) 등의 신 남성학자들은 남성을 인간으로, 남성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바뀐 성 즉 남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소실되거나 은폐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인간의 범주에 여성이 간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간과되었다.

남성을 성적으로 규정된 존재로 보며 남성의 경험은 남성고유의 것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변적인 것이다. 즉 여성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만들어진다. 남성의 생물학적 조건에 근거한 자연적 또는 당연하고 건전한 남성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남성의 성 역할로부터의 이탈을 병적이라거나 건전하지 않다고 보는 진단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남성역할에 내재된 역할압박이야말로 병을 야기시킨다. 가부장적 남성성이야말로 일종의 결핍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남자다움, 남성성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폭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남성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한다. 즉 다중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희생자라는 남성의 존재는 바로 전통적인 남성이해에 무의식적으로 정면충돌하는 문화적 모순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지도 연구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은폐되어오는 군대와 직장에서의 폭력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남성이 전통적 남성다움으로써 겪는 무력함과 피해자로서의 폭력의 경험은 폭력적 경향 및 폭력행위로 역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의 폭력의 문제는 자체상 연구되어야 한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성욕/ 성의식 또한 여성에게 미치는 문제만 다루어진다. 남성의 성은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신화 속에서 남성의 성욕이 여성에게 가져다 주는 문제, 성폭력 포르노그래피 성 매매 등만 다루어진다. 그러나 성은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계급과 인종 전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나 세계질서 내에서의 위치 역시 사회적 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 남성성이 아니라, 흑인 남성성 백인 남성성 노동자계급의 남성성 중산층의 남성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단일한 흑인 남성성 단일한 노동자계급의 남성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적 남성은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동의를 근거로 한다. 남녀만이 아니라 상이한 남성 집단 간에도 예속, 공범, 주변화의 원칙에 따라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예속의 원칙: 동성애남성들의 경우 남성적 성 위계질서에서 최하위에 위치 동성애 남성은 지배적 남성을 가장 위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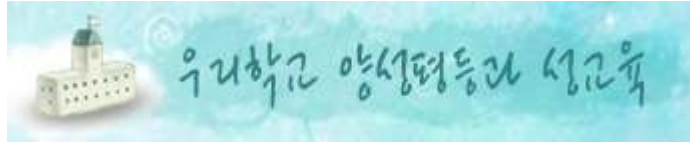
공범의 원칙: 지배적 남성성을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남성은 지극히 적은 숫자 그렇다 해도 남성성의 사회적 헤게모니는 다수 남성에게 이익을 준다. 남성 위계질서의 최하위에 있는 남성 실업자도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받아 원칙적으로 가족의 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의 의무가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며 여성을 억압한다.

주변화 또는 배제: 백인 지배사회에서 흑인 남성성의 상징화, 의미부여 그리고 가치이용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남성은 여성에게 만이 아니라 남성 간에도 위계질서를 만들며 지배의 관계를 만들며 많은 남성의 문제들을 가진다.

남성의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남성들은 일찍부터 감정을 억제하도록 양육된다. 감정의 억제는 다양한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2. 대부분의 남자들은 관계의 친밀성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문제를 가진다.
3.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혼과 헤어짐에 적응하는데 더 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다.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즉 남성들은 정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는 확실하지 않다
4. 남성들이 더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5. 노숙자들과 죄수들 중 대부분은 남성이다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6. 남성의 수명은 여성의 수명보다 일반적으로 짧다
7.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8. 남성의 인간관계의 질은 종종 빈약하다
9. 남성성에 대한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

[학습내용-3] 새로운 남성성(들)구성하기

이러한 단순한 남성이해 전통적인 남성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성성을 구성해야 한다. 남성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다른 견해로 인해 변화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1) 친 여성주의(Profeminism):

남성의 경험의 분석에 페미니즘의 철학적 요인을 사용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표현을 위한 유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자기표현을 위한 자기행동을 한다. 그러나 젠더역할은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파괴적인 사회적 힘으로 작용한다.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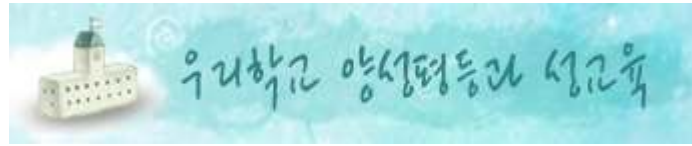
이들은 남성자신의 본성적 남성성을 거부함으로써 멋진 친구들(nice guys)이 될지는 몰라도 진짜 사나이(real men)는 아니다. 남성자신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여성문제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미안해하면서 우선은 여성을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하며 오직 부차적으로만 자신을 돌본다.

2)신화적 운동(The Mythopoetic Movement)

1990년대 초 로버트 블라이(Robert Bly 1990)의 'Iron John'과 샘 킨(Sam Keen)의 'Fire in the Belly' (1991)의 두 저서의 영향으로 인한 남성성회복운동이다,

웅의 심리학에 의거하여 그들은 현대의 남성은 남성원형을 잃어버린 자기로부터 소외된 존재이다. 이 깊은 남성성(deep masculinity)은 격렬하나 폭력적이지 않고 신비하면서 확고한 남성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로부터 분리되면서 남성의 자기소외가 일어난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남성의 가정에서의 추방, 남성성인식의 실종,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비하, 남성



[4 차시] 남성성과 남성다움

과 아버지 사이의 유대상실 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야성적 남성의 가치의 폄하에 의해 이러한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에 의하며 친 페미니즘적 남성들은 부드럽고(soft) 여성에게 지배당하며 자기로부터 소외된 마마보이다

남성의 변화는 주로 개인적 변화에 집중하며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남성세계로 남성만의 활동을 해야 한다. 이 활동은 주로 제의적 활동인데 남성들끼리 이야기하기 시 읽기 드럼치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한다.

비판:

주로 페미니스트의 비판인데 우선 사회문화적 젠더보다는 본질적인 결정된 남성성을 전제하는데 대해 비판한다. 또한 어머니와 여성과의 분리를 통한 남성성회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부장제의 출현으로 비판했다.

3) 새로운 남아교육

새로운 남성성의 구성을 위해 남아연구와 의식적 남아연구이론이 등장한다.

친 여아적 모델 하에 남자청소년은 폭력예방훈련과 반성차별주의적 훈련이 필요한 어린 건달로 간주하는데 이렇게 반성하게 하는 이론과 실행은 남아들에게 적용 시 한계와 이론적 편협성을 보여준다. 남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의 수정 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정 학교와 여러 동아리의 조직에서 남아가 겪는 부담과 폐해를 진지하게 다루고 남성성을 사회적으로 획득되고 전수받고 증명되고 표현되는 따라서 역으로 사회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화되었던 남성성은 평가절하 되고 일종의 결핍으로 보면서, 힘 돌파력 우월성 통제능력 같은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되었던 능력들을 병립하기 어려운 의사소통능력, 감정이입 신체적 욕구에 대한 감수성 등으로 대체하려는 데서 따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아들이 대안적 남성성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해서 남성적 동일시 모델로서의 교육자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유년기성장과정에서 체험 가능한 남성적 동일시 인물이 결핍되었을 경우 남성의 정체성획득이 어렵다. 유아교육에서의 많은 남성의 참여, 특히 문제의식을 갖춘 남성교육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의식적 남아교육 주창한다